

產前管理 妊婦의 受診과
分娩에 關한 實態調查 研究

全南醫大 看護學校 金 玉 實

> Abstract <

The Studies of the status receiving Prenatal care and delivery on clinic registered expectant mothers

Ok Sill Kim

*School of Nursing Chonnam University Medical School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honnam University Medical School
(Director: Associate Prof. In Hyun Song)*

The status of visits and deliveries on 1218 expectant mothers who registered at prenatal clinic, maternal and child health center, Chonnam University Hospital, during Jan. 1958 to Dec. 1965 has been studied, and the following result were obtained:

1. The majority of prenatal clinic visitors are women educated over primary grade, and the majority of hospital deliveries were performed in higher a edu-

cated group of women. Although in relationship between early visits and educational grade, no difference can observed. The less educated women tend to fail to continue to attend the clinic.

2. Both in clinic visits and hospital deliveries the higher group of husband's occupations are white collar workers.

3. The largest aged group of visitors were 25 to 29.

4. Less experienced pregnant

women like to visit prenatal clinic, but para 2,5 and over 9 are the groups most eager to receive prenatal care. The majority of pregnant women visit the clinic at the latter part of pregnancy, (9th. or 10th. month of pregnancy) but those who visited for the first time at 7 months of pregnancy better than any other month.

5.42.6% of the total visitors have been delivered at the hospital. Hospital deliveries are related with the number of clinic visits and the cases of primipara and para over 10 make the most use of the hospital delivery room.

1. 緒 論

醫學의 進歩와 生活樣相의 變遷에 따라 母子健康管理에 關한 問題點드 變化하여 歐美諸國에서는 많은 妊婦들이 産前管理와 病院分娩에 積極參與하고 있다. 그 結果 美國⁴⁾의 경우 母性死亡率이 1915년에 出生 10,000에 對해 60.8이던 것이 1959년에는 2.5로 떨어졌다. Eastman⁵⁾에 依하던 現在 歐美諸國에서는 母性死亡率이 出生 10,000에 對해 10以下가 보통이고, 妊婦의 95%以上이 産前指導를 받으며 病院分娩을 하고있는 實情이다.

淸⁶⁾은 韓國의 경우 母性死亡率은 1960年 서울 鍾路保健所가 出生 10,

000에 對해 22.7이라 하였고, 權¹⁾은 釜山日新婦人病院의 경우 1953년부터 1957년까지 5年間に 出生 10,000당 100이라 發表하였다.

1932~1933年 뉴욕市³⁾에서 2,041例의 母性死亡에 關하여 調査한 結果 그중 65.5%는 豫防할 수 있었다는 것이 判明되었고, 1948년에 4,122例의 母性死亡中 亦是 65%는 豫防possible한 死亡이었다는 것이 判明되었다.

女子가 結婚하여 妊娠을 하게되면 妊娠 成立直後부터 出産, 産褥에 이르기 까지 各期에 따라 生理的 特徵이 달라지고 이 生理的 特徵에 따라 保健問題도 달라지게 된다⁵⁾. 때로는 妊娠으로 인한 過重한 母體의 變化가 母兒兩者間에 危險을 隨伴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生理的 變化의 特徵에 따라 要求되는 保健問題를 올바로 解決하고 母兒兩者間에 隨伴되는 危險을 未然에 豫防 또는 早期에 發見하여 對策을 세우기 爲하여는 妊娠成立直後부터 産前期, 出産期, 産褥期를 通해 專門醫에 依한 産前診察과 保健指導가 必要하다.¹⁾

著者는 全南大學校 醫科大學附屬病院에 附設된 母子健康相談所에 産前管理를 받기 爲해 來所한 妊産婦를 對象으로 하여 그들의 産前受診과 分娩에 關한 實態를 調査하여 女性健康管理에 寄與하고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調査方法

本 調査는 母子健康相談所 開所以來 指定事業區域으로 選定된 光州市內 瑞石洞과 南洞의 居民에 對하여 家庭訪問을 通해서 調査한 後 登錄케한 妊婦와 其外의 區域에 居住하는 妊婦들로서 任意로 本 相談所에 찾아와 登錄한 者를 合하여 1958年 1月부터 1965年 12月까지의 사이에 登錄된 總 1,218名에 對한 調査 記錄中에서 調査項目을 핀치 카드에 옮겨 調査한 것이다.

但 1961年은 本 相談所의 事情때 문에 記錄이 不備되어 있으므로 이 를 省略하였음을 附言한다.

III. 成績 및 考察

A. 産前診察의 受診 實態

1. 教育和 受診: 1958년부터 1960년까지의 3年間に 걸친 554名에 對하여는 教育程度가 調査記錄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除外하고 1962년부터 1965년에 걸친 664名에 對하여 調査한 結果는 表 1과 같다.

[表 1] 教育和 受診

受診者	學歷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計
人 員		126	158	171	178	31	664
%		19.0	23.8	25.8	26.8	4.7	100

以上の 教育別 受診狀況은 光州市內 可妊婦人의 教育程度別 分布와 比較해 보지 않고는 어느 教育層의 妊婦

가 妊娠으로 因한 母體의 變化에 對하여 더 關心이 있고 産前診察의 受診에 더 積極的이라고 斷言하기는 어려우나 一般的으로 國卒以下 高卒까지의 有學層에서 受診率이 높고 無學層에서 比較的 낮은 것을 알수 있다.

權²⁾에 依하면 서울 城東區의 可妊婦人 3,204名의 標本에 있어 教育程度別 分布狀態가 國卒 42.3% 中卒 14.0%, 高卒 11.6%, 無學 10.6% 그리고 大卒 2.6%였다고 하는데 이 分布를 그대로 引用하여보면 本 調査에서는 高卒 中卒 等 有學層에서 受診率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2. 配偶者의 職業과 受診: 受診 妊婦들의 配偶者의 職業과 産前診察의 受診實態를 보면 表 2와 같다.

配偶者의 職業이 公務員이나 敎職者 또는 商業에 從事하는 層에서 受診率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配偶者가 無職인 경우도 受診率이 높은 것은 現 韓國都市의 實情으로 보아 그들 중에는 高等教育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就業하지 못한 者가 많아서 無料나 實費인 本 相談所의 惠澤을 받고 있는 것 같으며, 配偶者가 軍人인 경우가 10.4%가 되는 것은 軍事都市로서의 特色은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年齡과 受診: 受診妊婦를 年齡別로 分類하여 보면 表 3과 같다. 20~24歲群보다 25~29歲群에서 受診率이 더 높은 것은 近來에 와서

女性の結婚年齡이 이 群에서 많아 졌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 같다.

4. 妊娠回數와 受診: 妊娠回數別 受診者의 數를 보면 表 4와 같이 初産의 경우가 29.6%로 가장 많고 妊娠回數를 거듭함에 따라 受診者數가 점차 減少되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各 妊娠回數群에 있어서 産前診察에 對한 關心과 積極度를 알기 위하여 계속 4回以上 受診에 參與한 數의 比率를 보려는 妊娠 2回와 9回以上 群에서 各 31%의 率을 보이고 있고 5回群에서 23.8%로서 그 前後群보다 多少 높은 比率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 配偶者의 職業과 受診

配偶者 職業	無職	商	工	農	軍	教職	公務員	舍社員	其他	計
人 員	183	191	51	17	127	148	274	105	122	1,218
%	15.0	15.7	4.2	1.4	10.4	12.1	22.5	8.6	10.1	100

[表 3] 年齡과 受診

年 齡	~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	計
人 員	1	165	580	299	135	35	3	1218
%	0.1	13.5	47.6	24.6	11.1	2.9	0.2	100

[表 4] 妊娠의 回數와 受診

妊娠回數	1	2	3	4	5	6	7	8	9	計
人 員	361	190	173	161	130	86	51	37	29	1218
%	29.6	15.6	14.2	13.2	10.7	7.1	4.2	3.0	2.4	100
4回以上 繼續受診者	79	59	35	32	31	18	8	7	9	278
4回以上 受診參與率(%)	21.8	31.0	20.2	19.8	23.8	20.8	15.7	18.9	31.0	22.9

5. 妊娠月數와 受診: 初 訪問時의 妊娠月數는 表 5와 같이 10個月된 妊婦가 31.1%로 가장 많고 9, 8, 7, 6月の 順으로 妊娠月數가 적을수록 産前受診의 數가 적어질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各 妊娠月數群別로 4回以上 繼續受診한 者의 比率를 보면 5,

6, 7月の 妊娠中期受診群에서는 30% 이상의 繼續受診度를 보이고 있고, 8, 9, 10月の 妊娠末期群에서 急激한 減少를 보이고 있다. 特히 妊娠中期 群中에서도 7月群에서 38.2%로 가장 높은 率을 보이고 있음은 이 妊娠 期에 當한 妊婦로서 이와 같은 機關에서의 産前管理를 받게 되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積極적으로 自身の 産前保健을 爲하여 効力하게 될을 말하여 준다.

反對로 妊娠末期群에서는 多數의 妊婦가 受診을 爲하여 一次 訪問은 하나 繼續 管理에 對한 積極度는 妊娠中期群에 比하여 低下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特히 10個月에 受診한 妊婦들에 있어서는 豫定日이 臨迫한 경우가 많고, 1回 또는 2回の 受診後에 分娩한 妊婦도 있을 것이므로 本 調査에서 脱落된 數가 많은 것으로 豫想되며, 10個月된 妊婦의 경우 8.9%라는 急激한 低率은 이러한

事實을 말하여 주는 것 같다.

表 5에 있어 綜合하여 보면 本 相談所의 産前診察 受診者中 半數以上인 51.8%의 妊婦가 妊娠 9個月 또는 10個月에 分娩時期가 臨迫하여 來所受診하고 있는 實情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晚期診斷은 異狀의 早期發見, 衛生的 産前嚮生, 完全한 分娩準備, 올바른 育兒에 對한 知識⁵⁾을 얻을 수 있는 相談機會가 充分치 못할 것이므로 妊娠 7個月以前の 來所受診을 積極勸奨⁶⁾하여야 할 것이다.

[表 5] 妊娠月數와 受診

妊 娠 月 數	~5	6	7	8	9	10	計
人 員	127	106	136	218	252	379	1,218
%	10.4	8.7	11.2	17.9	20.7	31.1	100
4回以上受診參與者	38	37	52	60	57	34	278
4回以上受診參與率 (%)	30.0	34.9	38.2	27.5	22.6	8.9	22.9

6. 教育程度別로 본 妊娠 5個月以前の 受診과 1回の 受診에서 中斷된 數: 妊娠 5個月以前の 受診者는 大卒과 國卒이 各 16.1%로 比較的 높으나(表 6-a), 1回에서 그쳐 버린 率은 無學 또는 國卒에서 各 46%와 46.2%로 가장 높았고, 大卒이 29%로 가장 낮았다(表 6-b).

이는 妊娠中 繼續的 管理를 받는 態度에는 教育的 要因이 重要な 役割을 하고 있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全體적으로 보아 單 1回の 受診으로 그쳐 버린 경우가 41.3%의 高率을 차지하고 있음은 管理者의 積極的인 努力과 被管理者를 爲한 繼續的인 保健教育⁹⁾이 必要함을 말하여 주고 있다.

[表 6-a] 教育程度別 妊娠 5個月以前の 受診

受診者學階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計
人 員	126	158	171	198	31	664
5個月以前受診者	20	27	22	17	5	91
%	15.9	16.1	12.9	9.6	16.1	13.7

[表 6-b] 教育程度別 1回受診으로 中斷된 率

1回에 中斷된 數	58	73	66	68	9	274
%	46.0	46.2	37.6	38.2	29.0	41.3

B. 産前診察受診者の 分娩實態

本 相談所에 登錄된 妊娠婦 1,218 名中 1965年 12月 現在 豫定日 未達者가 52名이므로 이를 除外한 1,166名에 對한 分娩實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受診者 分娩場所 및 介助: 本 相談所 受診者中 病院分娩이 42.6% 이고(表 7-a), 有資格者에 依한 介助가 57.4%로 醫師 42.7%, 助産員 14.7% 였다(表 7-b).

率³⁾에 依하면 美國의 경우 全妊婦의 96%가 病院分娩을 하고있고, 日本의 경우 全妊婦의 96%가 醫師(20%)나 助産員(76%)等 有資格者에 依해 分娩하고 있는 實情인데, 이에 比하여 本 調査에서의 病院分娩 42.6%와 有資格者에 依한 分娩 57.4%는 아직도 登錄된 妊婦들이 分娩에 對해 必要한 理解가 缺乏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嚮바톤 啓蒙 教育이 要된다.

[表 7-a] 分娩場所

分娩場所	病院	家庭	未詳	計
人 員	497	412	257	1,166
%	42.6	35.3	22	100

[表 7-b] 分娩介助

介助者	醫師	助産員	其他	未詳	計
人 員	498	171	240	257	1166
%	42.7	14.7	20.6	22	110

2. 教育程度와 病院分娩: 病院分娩을 教育程度로 보면 大卒이 77.4%로서 가장 높고 高卒, 中卒, 國卒, 無學의 順으로서 病院分娩도 亦是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높아짐을 알수 있다.

[表 8] 教育程度와 病院分娩

受診者學歷	無學	國卒	中卒	高卒	大卒	計
人 員	126	158	171	178	31	664
病院分娩數	20	34	87	103	24	268
%	16.4	23.5	57.6	26.3	77.4	40.4

3. 配偶者의 職業과 病院分娩: 本 相談所에 登錄된 妊娠婦의 配偶者의 職業別 病院分娩을 보면 軍人이 58%로 가장 높았고, 會社員이 54.5% 그리고 一般公務員이 47.7%, 敎職者가 44.4%로 비슷한 率이었다.

軍人의 경우가 首位인 것은 光州市가 軍人都市인데다가 軍人은 他職業에 比하여 客地生活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리고 會社員, 敎職者, 公務員 等과 같은 事務職은 比較的 教育水準이 높은 것으로 豫想되어 配偶者의 教育程度가 病院分娩에 影響을 미친다 하겠다.

〔表 9〕 配偶者の職業과 病院分娩

配偶者職業	商	工	農	軍	教職	公務	會社	其他	無職	計
人 員	180	50	17	126	142	258	101	114	178	1,166
病院分娩數	68	13	6	73	63	123	55	40	56	497
%	37.7	26.0	35.3	38.0	44.4	47.7	54.5	35.1	31.5	42.6

4. 受診回數와 病院分娩 : 9回以上의 受診者가 81%로 가장 높고, 8回 6回, 7回, 5回的 順으로 점차 低下되나 8回以上은 80% 以上이 病院分娩을 擇하고 있고, 1회에 그친 受診者는 31%로 가장 낮은 率을 보이고 있다. 이는 繼續産前管理를 받았던 妊婦가 病院分娩에 對하여 더욱 關心을 갖게 됨을 알수 있다.

〔表 10〕 受診回數와 病院分娩

受診回數	1	2	3	4	5	6	7	8	9~	計
人 員	468	244	188	93	73	57	25	7	11	1166
病院分娩	145	86	102	51	43	39	16	6	9	497
%	31.4	35.2	54.3	55.2	58.9	68.4	64	80	81	426

5. 出産回數와 病院分娩 : 10回以上의 妊娠婦가 53.3%로 가장 높고 다음은 1回 即 初産婦가 51.5%였다. 이는 出産回數가 많은 多産婦와 過去의 出産經驗이 없는 初産婦가 더욱 安全分娩을 爲하여 對備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表 11〕 出産回數와 病院分娩

出産回數	1	2	3	4	5	6	7	8	9	10~	計
人 員	313	226	162	142	126	73	53	36	20	15	1166
病院分娩數	160	95	63	60	47	22	20	15	7	8	497
%	51.5	42.0	38.9	42.3	37.3	30.1	37.7	41.7	33.0	52.3	42.6

結 論

1958年 1月 부터 1965年 12月 (1961年 除外)까지 사이에 全南大學 醫科大學 附屬病院 母子健康相談所에 登錄된 妊産婦 1,218에 對하

여 그 産前診察受診과 分娩에 關한 實態를 調査하여 다음의 結果를 얻었다.

(1) 受診來訪은 國卒, 中卒, 高卒等 有學層에서 大部分을 차지하며, 妊娠 5個月 以前의 早期受診에 있어

서는 教育程度別로 큰 差異가 없으나 教育程度가 낮으면 1회의 受診으로써 中斷되는 率이 높고,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病院의 分娩利用度는 높아진다.

(2) 配偶者의 職業이 公務, 敎職, 軍等 事務職인 境遇에 受診來訪이 많으며 病院의 分娩利用도 높다.

(3) 受診來訪者의 年齡은 25~29 歲群에서 가장 높았다.

(4) 受診來訪者는 妊娠回數가 적을수록 많고 繼續 4回以上 受診하는 率은 各 妊娠回數 2回, 5回, 9回以上에서 높아진다. 그리고 初訪問時의 妊娠月數를 보면 妊娠 9, 10個月에 分娩期에 가까운 妊婦에서 受診來訪이 많아지며, 4回以上 繼續受診하는 率은 初訪問이 妊娠 7個月群에서 가장 높다.

(5) 全産前診察受診者의 42.6%가 病院에서 分娩하고 있으며 受診回數가 많을수록 病院의 分娩利用度가 높아지고 出産回數 10回以上, 初回

出産에서 病院分娩이 많다.

參 考 文 獻

- 1) 權彝赫：公衆保健學 (1963)
- 2) 權彝赫, 金泰龍：都市人口調査에 關한 研究 (1965).
- 3) 李彩熙：母子保健概要 (1964).
- 4) Nicholson J. Eastman; Williams Obstetric, (1961)
- 5) Louise Zabriskie, R.N.; Mother and Baby Care. (1953).
- 6) Zabriskie and Eastman; Nurses Handbook of Obstetrics. (1961).
- 7) Ruth B. Freeman, R. N. Ed. D.; Public Health Nursing Practice (1957).
- 8) Luis A Alvaree, R.N., M.A.; Public Health Nurse in the philippines (1959).
- 9) Ruth Gilbert, R.N.; Public Health Nurse and the patient (1958).
- 10) Kenneth F. Maxcy, M.D., Dr.P.H.;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1956).

해 부 · 생 리

(제 5 판)

N. D. Millard > 공저
B. G. King >

홍 옥 순 역

이병희 박사 교열

값 < 일반가 850원
학생가 590원

고급양장 · 모조 · 靑六배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발행